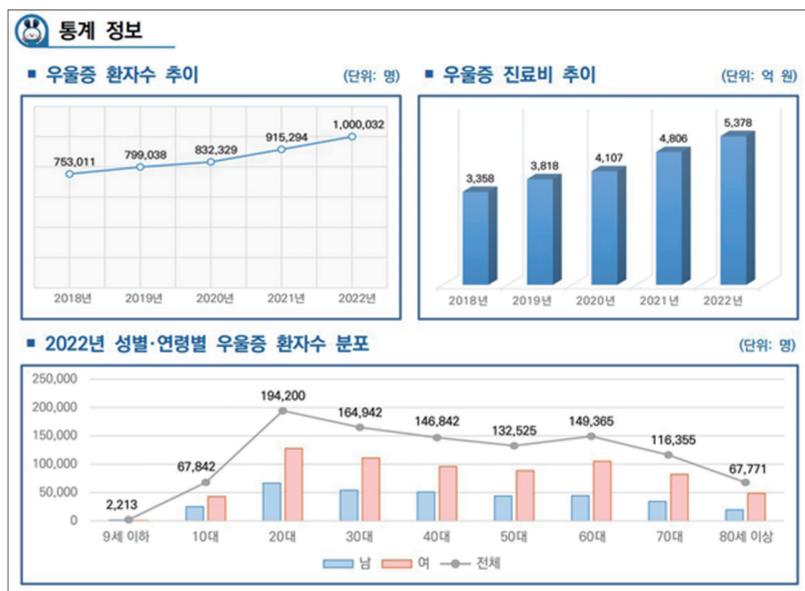


우울증 환자, 연간 100만명 넘었다

심사평가원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 외래 늘고 입원 줄어...여성·젊은층이 다수



우리나라에서 연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우울증 관련 진료비도 5000억원을 돌파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 속 질병·진료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00만32명이다. 연간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도별 우울증 진료 인원을 보면 2018년 75만 3011명에서 2019년 79만9038명, 2020년 83만2329명, 2021년 91만5294명, 2022년 100만32명 등 해마다 증가했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7.4%다.

우울증 외래 환자 수는 2018년 74만7797명에서 2022년 99만5089명으로 증가했으나 입원 환자 수는 같은 기간 1만7239명에서 1만2877명으로 줄었다.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증가했는데, 우울증 진료비는 2018년 3359억원, 2019년 3818억원, 2020년 4107억원, 2021년 4806억원, 2022년 5378억원 등이다. 1인당 진료비는 2022년 기준 53만7748원이다.

2022년 기준 성별 우울증 환자는 여성이 67만 4050명, 남성이 32만598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2022년 우울증 진료 환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면 20대가 19만4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만 4942명, 60대 14만9365명, 40대 14만6842명, 50대 13만2525명, 70대 11만6355명, 10대 6만7842명, 80세 이상 6만7771명, 9세 이하 2213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우울증 등 정신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김형준 前검사 "공수처 억지 기소"

수사 편의 봐준 대가로 금품 등 수수혐의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최태영·정덕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을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항응·뇌물이란 점에 대해 피고인들이 직무 관련 금품을 인식해 이를 수수·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억지 기소'라고 규정하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기소한 분사건은 이미 2016년 대검찰청 특별팀에서 무혐의로 수사를 마친 것"이라며 "이를 재당, 억지 기소했음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인이 돈을 받아 놓고도 그 중간 단계의 일부를 뇌물이라고 억지 주장하자, 그것을 무리하게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공수처에서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정치적 억지 기소, 사기 협박법에 근거한 형사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 또한 "증거가 아니라 의혹만을 근거로 (공수처) 제기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경의를 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 측은 "판결문 내용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

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은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항응의 대가로 수사의 편의를 보겠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0월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오유나기자

세월호참사 10주기 100일 앞... "이태원·오송 참사와 연대"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끝까지 놓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100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거듭 촉구하며 다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다짐했다.

'4·16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는 10일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이 자리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조사기구를 통한 조사는 종료되었지만, 진상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방기와 국가폭력의 윤곽이 드러났을 뿐 전모가 밝혀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책임 있는 이들이 제대로 합당한 처벌을 받은 것은 더욱 아니다"며 "구조를 방기했던 해경 지휘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지난 대법원 선고를 상기시켰다.

이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공식 인정, 대통령의 사과, 미공개 정보 공개와 추가조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인정도, 사과도,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책임회피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헬리콥터 압사 사고, 충북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세월호참사 이후 발생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연대도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의 기억을 지우고 연대를 흔들며,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과 역주행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다"며 "세월호 지우기는 이태원참사 지우기, 오송참사 지우기, 나아가 우리가 직면할 모든 위험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진실과 책임,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재난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연대를 '재난의 정치화'로 낙인찍고 혐오정치의 상징으로 내던지는 것에 함께 싸워달라"고 했다.

이들은 오는 2월25일 오전 10시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경북, 전북, 충청, 강원, 안산 등을 거쳐 3월16일 서울로 오는 20박21일 코스의 10주기 도보 행진에 나선다.

4월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유가족들이 지닌 희생자들의 유류품으로 전시가 펼쳐진다. 서선욱기자



광주전남방무청, 각 군 모병관 초청 간담회 개최

광주전남지방방무청은 지난 10일 광주전남방무청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에서 각 군 모병관들을 초청하여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희면기자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 대화형 인공지능 특강

해양경찰교육원은 지난 9일 오후 충남 천안 직무교육훈련센터에서 교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AI)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고흥경찰, 정성치안 경찰서장 특강 실시

고흥경찰서는 지난 9일 금산면 소재 오천교회에서 고흥경찰서 경무회 회원들과 도사지역 주민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르신이 안전한 고흥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지휘관 최일선 파출소 현장 치안 점검 나서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관할 해역 위험개소 파악 및 즉응태세 점검을 위해 강홍군 소재 회진파출소를 방문, 치안현장점검과 함께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담양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2024년 소방복지서비스 활동

담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지난 8일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실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2024년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 대상 생활밀착형 소방복지서비스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소방, 전입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여수소방서는 지난 10일 자로 전입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